

2010

11월 14일

제18권 46호

마데데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14일용 기도제목 100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간행하는 기도에 대하여 ⑥

신앙은 현재의 상황에만 치우쳐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하는 자세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생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에 의한 기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성경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둔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 하라 는 식의 기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성경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둔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경 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따라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도가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졸라대듯 구하는 것은 모두 자기 육신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 많은 여고생들이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한다. 예뻐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겠지. 과연 인간이 외모로 행복할 수 있을까? 외모로 행복해지고,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미모를 기본으로 하는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하고 돈이 있는데도 왜 자살을 하는가? 세상에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인해 행복해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육신적 조건으로 행복해졌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일 뿐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육신적 조건은 물론 무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라면 육신적 조건을 삶의 목적으로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자신을 확대시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참된 생명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마음을 두는 신자에게서는 육신적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자기를 확대하기 위한 기도는 자연히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자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의 어두운 눈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실만 볼 뿐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금 필요한 현실적 문제만 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자는 약속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명의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신자의 기도는 이 사실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삼고 그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태도다.

- 끝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십자가와 근심 마 17:22-23

◎ 십자가와 새로운 세계 ◎

열심이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해봐야 교회 생활에 대한 부지런과 목사가 신앙의 원리라고 말하는 주일성수와 기도와 십일조 생활이 거의 전부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좋은 신앙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 눈에 그렇게 비춰질 뿐이고, 그것들이 목사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으로 강조할 뿐이지 진심으로 예수님과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오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것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품고 있는 세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갈 6: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의 도구로 삼습니다. 여자들은 육체에 걸치고 있는 옷이나 보석, 또는 명품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세상에서의 지위나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이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잘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는 자기 육체와 연결된 자기 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

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주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진심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육체를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면 삶은 자기 육체의 확대와 치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랑거리가 될 만한 육체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근본이 자기 육체, 즉 자기 몸을 위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사람들을 붙들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도가 말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는 그 같은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십자가를 외치는 사도의 말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 방식 그대로 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십자가의 길 ◎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이상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듣는 예수, 즉 구세주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메시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줄 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야로 믿었던 분이 자신의 입으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보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귀에 더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죽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인데 그것을 인간이 막을 수도 만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리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곧 사람의 일에 매진하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장차 십자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세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독교인의 신앙의 표로만 생각할 뿐 십자가가 근본이 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인해 달라진 세상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는 말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뜻합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세상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의 새사람으로 거듭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고전 1:23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즉 십자가는 세상에 내어 놓고 자랑할 만한 고상한 원리도 가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고상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이론과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상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모든 업적과 고상하고 가치 있는 행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현장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십자가는 삶의 근본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영광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장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만 보이는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으심으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신자입니다.

◎ 제자들의 근심 ◎

그런데 제자들은 죽고 다시 사심에 대한 말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영광의 세계가 상실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이 곧 근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참된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등 현실적인 것으로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생계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근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

고자 신을 찾으면서 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자기 열심을 보이고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시작된 영광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영광에 매어 사는 것이고, 신앙은 이같은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의 고백에 우리 함께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처럼 십자가의 세계에 눈을 떴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세계를 알았을 때 사도의 모든 고백에 심적으로 동의하며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그릴 때 사도의 기쁨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렵잖아나마 알게 되는 것이고, 사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 자리가 점차 확실히 되어서 새로운 세계는 점차 여러 분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 된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십자가의 세계나 참된 영광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별 상관없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의 자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왜 불안과 근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이루어질 다른 세계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몰두함으로써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영광의 세계가 아닌 세상에서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는 전혀 가치 없는 일로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한 영광의 세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세계의 가치를 아는 것, 그보다 복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일오후 설교



강림과 영광

살후 1:10-12

(3강 10.17일 설교)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아직 멀었다 입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천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것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누려보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좀 더 고상한 인간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세상에 끝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단순히 손오공처럼 구름타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신화적 의미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판은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참된 진리와 생명을 조롱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기어이 완성하시겠다는 의지와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같은 약속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고 시험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것이 곧 인내고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이같은 말에 얼마큼 관심을 두고 있

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이라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의 강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삶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 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바로 그것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 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이 모르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세상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여 세상의 것이 있고 없는 것으로 울고 웃으며 산다면 예수님의 강림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모두 해체되어 사라집니다. 밥 먹고 돈벌며 즐기고 누렸던 모든 일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일상 또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한 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 사람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재림과 함께 일상이 끝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신자가 투철해야 하는 것은 '주가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앙에 투철한 자로 산다면 그는 세상 속에서 높임 받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일 뿐이고 헛된 명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힘쓸 뿐입니다.

이처럼 주의 강림을 믿는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거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고, 빈자리를 채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교회의 잘됨과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11-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도의 교회를 향한 관심은 부흥이 아닙니다. 주가 강림하셨을 때 교회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가 부흥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기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고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부흥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벗어나고, 주의 강림을 밀쳐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는 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가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누리는 참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나 교회 건물의 크기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교인 수와 건물의 크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누리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신자라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그 얕이 현재의 삶에서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주의 강림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

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없는 팔자를 한탄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힘과 무기로 여기면서 약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한탄하게 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돈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합니까? 그것은 주의 강림을 생각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주의 강림을 덮어 버리면 보이는 것은 세상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찬란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인간이 원하고 구하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참된 영광은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강림하실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누리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주가 강림하시고 주가 이루실 영광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영광의 회복

나 2:1-13

(3장 11.3일 설교)

현대 교회가 표방하는 신앙은 변영 신앙, 또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변영과 승리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변영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자가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신자도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을 변영과 승리로 연

결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영과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쇠퇴와 패배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쇠퇴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은 곧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는 앗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는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면 그런 의미의 회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1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고 말합니다.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 삼아 앗수르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말한 대로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유다를 위기에 빠뜨리게 한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런 앗수르를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위기에 빠진 유다로 하여금 앗수르를 심판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힘과 연관된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를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파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만을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힘 있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그 심판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압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생명이 됨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로 하여금 앗수르를 공격하고 승리하게 한다면 그들은 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야곱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이삭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았습니 다. 그 후로도 야곱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도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한도빠가 부러지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서부터 진정한 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게 된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8절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앗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앗수르가 현실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의 결과로 믿고 하나님까지 조롱했지만 결국 전지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함께 하신 신자를 누가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세계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도우심은 세상에서의 번성이나 승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 낮아지게 하시고 고통의 길을 가게도 하십니다.

믿음은 세상에서의 번성과 승리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번성과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이니 힘으로 군림하는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쇠퇴의 길이고 패배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번성과 힘과 승리를 복으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만약 십자가를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의 번성과 승리에 목말라 한다면 그에게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영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91장
교 독 문	24(사46)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52장
성경봉독	마 17:22-23
설교제목	십자가와 근심(113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9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4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의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324장
기 도	왕경영 집사
찬 송	380장
성경봉독	살후 2:13-17
설교제목	전통을 지켜라 (6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5장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김정덕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박국 강애(1강)

나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신윤식



나는
내 속 때려가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환영 받지 못하고
득이 안되는 일이라면
그저 그런 몸 하나
세상과 함께 빙그르르 돌다가
한 줌 재로 사라지면 될 것을
목이 터져라 말해 본들
듣는 이 찾기 힘든 세상에서
나는
내 속 때려가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래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공기 휘감고 찢어져라 외치고만 싶다
들을 귀 있는 자 들리거든
그 속 거머잡고 후려치라고
뒤집힐 마음 뒤집히고
다잡을 마음 다잡아라고
생명의 길 외치리니
혹여 들리거든
그 맘에 빛이 되어
세상 따라 흐르지 않고
생명 따라 흘렀으면

교회소식

1. 다음주일은 주수감사절입니다. 점심은 각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하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힘든 가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